



# 서울특별시 감염병 소식지 제8호

발행: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전화: 02-740-8891~3 | 홈페이지: <http://scdc.or.kr/>

## 가을철 진드기 매개감염병 쯤쯤가무시증·SFTS 예방하기

### 감염경로와 증상 알아보기



#### 감염경로

- ▶ 감염된 털진드기 또는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



#### 증상

- ▶ **쯤쯤가무시증** :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초기증상 후 근육통, 기침, 구토, 복통, 인후염이 동반되고 발진과 가피(직경 5-20mm크기 부스럼 딱지로 물린 부위에 형성)가 나타남
- ▶ **SFTS** : 고열, 소화기증상(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주 증상이며 두통, 근육통, 혈소판감소, 출혈, 다발성장기부전 등의 증상이 동반 \* 치사율이 10-30%로 높음

### 예방법과 환자 발생 시 대처



#### 예방법

- ▶ 야외 활동 및 작업 시 긴팔, 긴바지, 양말 등을 꼭 착용하여 피부노출 최소화
  - 야외 활동에서 귀가하는 즉시 입었던 옷 세탁하고 즉시 샤워(목욕)하기
- ▶ 산책로·등산로 등 지정된 경로 이외의 풀숲에 들어가지 않기
- ▶ 풀 위에 앉거나 누울 때는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 후 세척하여 햇볕에 말린 후 보관하기
- ▶ 옷을 풀밭에 놓지 않기
- ▶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활용하기

\* 풀숲에서의 야외활동, 캠핑 또는 등산, 야생식물 채취, 농작업 지원, 감 따기와 밤 줍기, 주말농장 가꾸기와 같이 풀숲과 접촉 가능한 모든 경우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자 발생 시 대처

- ▶ 진드기에 물린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치료 받기



## 전문가 칼럼 |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



김동민(감염내과 전문의)  
조선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주 5일 근무 등으로 여가 생활이 증가하고, 최근 몇 해 사이 캠핑이나 등산 등 야외활동 인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진드기 매개감염병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쯤쯤가무시증, 아나플라즈마증,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등이 있습니다. 야외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진드기 매개감염병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대표적인 가을철 열성질환인 쯤쯤가무시병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드기를 큰 진드기와 작은 진드기로 나누는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일으키는 참진드기는 눈에 보이는 비교적 큰 진드기이고, 쯤쯤가무시증을 일으키는 털진드기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작은 진드기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오심,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바이러스 감염병이며, 쯤쯤가무시증은 털진드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 발열성 질환으로 쯤쯤가무시균을 보유하고 있는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뒤 1~3주 후에 갑자기 시작되는 오한, 발열, 두통 발진과 함께 진드기가 문 곳에 피부 궤양이나 특징적인 가피(eschar) 형성을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두 질환 모두 감염 초기에 고열이나 두통 등 몸살감기로 오인하기 쉬워 진단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칫 심각한 합병증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진드기에 물려도 통증이 동반되지 않으므로, 대부분 진드기에 물린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의 1/3 이하에서만 진드기에 물린 것을 감지하고, 쯤쯤가무시증 환자 대부분 진드기에 물린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므로 산이나 들 등 야외활동 후 3주 이내에 발열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9개 시도에서 채집한 자료 분석결과 참진드기의 약 0.46%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으나, 사람을 문 참진드기의 경우 약 7%의 감염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참진드기에 물릴 경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외에도 다양한 바이러스, 세균, 리케치아, 기생충 등의 질환이 감염될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제거해 주는게 좋습니다. 진드기를 직접 손으로 만지는 것은 다양한 진드기 매개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으므로 맨손으로 제거해서는 안 되고, 의료진이 직접 제거하여 진드기 종류 및 물린 기간,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예방적 조치나 치료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치사율이 20% 이상이지만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따라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 풀숲에 옷을 벗어 놓거나, 앉거나 눕지 않아야 하고, 밭일이나 야외 활동 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옷을 입고 긴 양말과 장갑을 착용하여 진드기 등이 기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바지의 끝자락을 긴 양말 안으로 넣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진드기가 붙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야외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귀가 후 즉시 샤워를 하고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고, 야외 활동 후 옷은 반드시 세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진드기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드기 기피제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질환 모두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므로 야외 활동 후 발열이나 감기 몸살 기운이 있으면 서둘러 전문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